

##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 : 양육효능감 매개효과

최정윤, 김성봉\*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 The Effects of Parenting Stress in Parents on Discipline Method :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Jeong-yun Choi, Sung-Bong Kim\*  
The Department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2세~만 5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제주도에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 417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은 훈육방식의 하위요인인 합리적 반응형, 감정적 반응형, 과대허용적 반응형으로 구분하여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와 합리적 반응형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하며, 양육스트레스와 감정적 반응형, 과대허용적 반응형 각각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양육스트레스가 있더라도, 합리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며, 감정적·과대허용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의 사용을 낮추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부모교육 및 상담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부모가 긍정적인 훈육방식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가정 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undertook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stress and the discipline method adopted by parents raising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2 and 5 living on Jeju Island. The study subjects were parents raising infants and toddlers attending daycare centers on Jeju Island. Four hundred and seventeen questionnaires were used in the analysis, which was performed using SPSS 18.0.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efficacy were investigated by dividing it into rational, emotional, and over-permissive response types, sub-factors of the discipline method. The analysis showed that parenting efficacy was predominantly mediated by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rational response and partially mediated by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emotional response, and over-acceptable response. In summary, the study suggests that parents with high parenting efficacy, even when stressed, choose a rational response type of discipline method, potentially reducing emotional and beyond-acceptable response types of discipline methods. This study provides data that guides the direction of parent education and counseling and contributes to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in the home by encouraging parents to use positive discipline methods.

**Keywords** : Parenting Stress, Discipline Method, Parenting Efficacy, Mediating Effect, Child Abuse Prevention

이 논문은 2024년도 제주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최정윤(2023)의 석사학위논문을 일부 수정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 Sung-Bong Kim(Jeju National Univ.)

email: edutopia@jejunu.ac.kr

Received May 7, 2024

Revised June 17, 2024

Accepted August 2, 2024

Published August 31, 2024

## 1. 서론

훈육은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과 가치체계를 자녀에게 가르쳐 자녀 스스로 통제하도록 하며, 자녀가 긍정적인 행동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여 사회에 적합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1]. 부모가 아동의 훈육을 위해 취하는 태도를 훈육방식이라고 한다. 어떤 훈육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아동의 성장과 발달이 달라질 수 있다[2]. 최윤희(2020)는 Baumrind(1971)의 이론을 토대로 훈육방식을 한국의 상황에 맞게 재정의하였으며, 권위적 훈육방식의 행동특성을 나타내는 합리적 반응형(rational discipline style), 권위주의적 훈육방식의 행동특성을 나타내는 감정적 반응형(emotional discipline style), 허용적 훈육방식의 행동특성을 나타내는 과대허용적 반응형(overly permissive discipline style)이라 명명하였다.

합리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은 온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바탕으로 자녀의 발달에 맞게 행동 기준을 설정하여 아동에 대한 존중과 설명, 모델링, 귀납적 추론 방식 등으로 지도하는 훈육방식이다. 감정적 반응형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하여 아동의 상황과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모가 감정적이고 강압적인 형태로 행동하여 아동에게 수치심을 주거나 협박, 체벌 등을 통해 아동의 행동을 수정하는 훈육방식이다. 과대허용적 반응형은 겉으로 보기에는 부모가 아동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부모가 양육에 대한 확신과 권위가 없어 아동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며 잘못된 행동을 묵인하는 훈육방식이다. 이때 부모는 스스로가 아동을 잘 훈육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많은 연구에서 훈육의 중요성과 그 시작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아이가 만 2세가 되었을 때 훈육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3]. 만 2세에서 만 5세에 이르는 시기는 영유아의 언어 및 사회성 민감기로서 이 시기의 영유아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4]. 이때, 부모가 어떠한 방법으로 자녀를 가르치느냐에 따라 영유아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5].

자녀양육에 관한 여러 연구는 부모의 비일관적이며 강압적 처벌, 지나치게 방만한 훈육방식이 영유아의 문제행동과 연관됨을 증명하였다[6-8].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부모가 애정적, 지지적이어야 하며, 영유아의 부정적 행동에는 강압적 처벌 등으로 영유

아의 행동을 제압하기보다는 일관성 있게 논리적, 합리적으로 훈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9].

과거에는 이러한 부모의 잘못된 양육 태도나 훈육방식에 있어 부모 개인적인 특성이나 아동의 기질, 성별과 같은 개별적 특성의 영향력을 강조하였으나, 최근에는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개인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가족이 처한 맥락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10]. 최근 가족구조와 역할이 변화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증가하면서 부모 역할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 부모들이 느끼는 양육스트레스 지수는 높아지고 있다[11].

초기 연구들은 스트레스가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을 매개로 하여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해 탐색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부모들이 겪는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우울 성향이 부모의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쳐 비효율적인 훈육을 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12]. 부모의 부정적인 기분이나 스트레스는 부모의 처벌적인 훈육 행동을 유발하고 아동의 공격성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않음으로 직접 또는 양육 행동을 통하여, 영유아의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 연구도 있다[13]. 이를 통해, 양육스트레스가 축적되면 부모의 훈육 방법이 부정적인 훈육방식 즉, 강압적이고 감정적이며 처벌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결국에는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선행연구 가운데 양육효능감은 영유아를 바람직하게 양육하는 부모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과 믿음을 의미하는데[14],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과 관련한 다수의 연구에서 다루고 있으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15-19]. 또한 양육효능감은 훈육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김혜원(2018)은 양육효능감이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으로 훈육을 하게 하는 신념이 될 수 있으며,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실제적인 훈육방식을 선택할 때 양육효능감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0].

따라서 선행연구를 종합해볼 때, 양육효능감이 양육과 관련된 요인들 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특히 양육스트레스가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이 직·간접적인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이 검증될 것으로 예측된다. 훈육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변인들의 관계를 살피는 것은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부모-자녀가 좀 더 건강하게 소통하도록 돕고, 전체 사회가 긍정적인 양육문화 확산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정이다. 또한 체벌이 금지된 사회 분

위기 속에서 아동을 훈육하는 방식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 부모에게 전체적인 양육태도 보다는 구체적인 훈육 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긍정적인 훈육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증명하여, 부모교육 및 상담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도내 만 2세~ 만 5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그리고 훈육방식의 관계를 파악하고,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을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훈육방식, 양육효능감은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만 2세-만 5세 아동 19,847명(제주특별자치도, 2022)의 부모 중 주 양육자로 한다. 설문조사는 군집표집 방법을 활용하여 제주도내에 위치한 7개의 어린이집을 선정 하였으며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450부를 배포하여, 432부 회수(회수율 96%)하였고 응답의 오류 및 결측값이 발생한 설문지 15부를 제외하여 총 417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 2.2 측정도구

#### 2.2.1 양육스트레스 척도

양육스트레스는 Abidin(1995)의 부모 양육스트레스 축약형 척도를 정경미, 이경숙, 박진아, 김혜진(2008)이 표준화한 한국판 부모 양육 스트레스 축약형 검사도구(Korean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K-PSI-SF)를 사용하였다[21,22]. 본 도구는 양육스트레스를 부모의 고통(PD),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PCDI), 까다로운 아동(DC)의 3개 하위 척도로 측정한다. 하위척도별로 12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수의 범위는 최저 36점에서 최고 180점까지 가능하며 총점이 90점 이상일 경우, 임상적으로 양육스

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본다[23].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914로 나타났다.

#### 2.2.2 훈육방식 척도

훈육방식은 최윤희(2020)가 제시한 한국형 훈육방식 척도를 사용하였다[24]. 본 연구의 척도는 합리적 반응형 9문항, 감정적 반응형 10문항, 과대허용적 반응형 8문항으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훈육상황에서 동시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각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훈육방식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훈육방식의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합리적 반응형 .852, 감정적 반응형 .832 과대허용적 반응형 .671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양호하였다.

#### 2.2.3 양육효능감 척도

양육효능감은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한 양육효능감 척도(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를 김정미, 임희선, 허성호(2014)가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부모 양육효능감 검사(Korean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K-PSOC)를 사용하였다[25]. 하위요인은 유능감 요인, 안정감 요인의 두 요인으로 구성되고, 각각 8문항과 7문항의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높은 양육효능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75로 나타나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양호하였다.

### 2.3 자료처리 및 분석

연구에 수집된 자료처리는 SPSS 18.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주요변인의 기술 통계량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에서 사용된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훈육방식,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주요 변인 간의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훈육방식의 하위변인들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Sobel, 1982)를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및 해석

#### 3.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대상자인 영유아기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훈육방식, 양육효능감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key variables (N=417)

Spec.		Mean	SD	Skewness	Kurtosis
Parenting Stress	Parental Pain	2.44	.64	.06	-.31
	Dysfunctional Interaction	1.52	.36	.96	.66
	Picky Child	1.90	.58	.69	.06
	All	1.96	.43	.27	-.60
Discipline Method	Rational Response	3.25	.37	.14	-.53
	Emotional Response	1.75	.43	.36	-.42
	Over-permissive Response	1.51	.41	.35	-.98
	All	2.18	.20	.23	-.23
Parenting Efficacy	Competence	3.40	.59	.14	.16
	Stability	3.85	.65	-.42	-.11
	All	3.61	.53	-.13	-.21

#### 3.2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양육스트레스, 훈육방식, 양육효능감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모든 주요 변인 간 상

Table 2. Correlation between key variables

Sortation	P.S	P.P	D.I	P.C	D.M	R.R	E.R	O.R	P.E	C	S
P.S	1										
P.P	.817***	1									
D.I	.805***	.496***	1								
P.C	.837***	.448***	.598***	1							
D.M	.395***	.313***	.286***	.364***	1						
R.R	-.377***	-.259***	-.411***	-.290***	-.079	1					
E.R	.485***	.342***	.413***	.446***	.807***	-.392***	1				
O.R	.376***	.312***	.320***	.298***	.679***	-.533***	.433***	1			
P.E	-.661***	-.496***	-.621***	-.538***	-.349***	.499***	-.496***	-.396***	1		
C	-.693***	-.597***	-.562***	-.546***	-.386***	.357***	-.467***	-.366***	.865***	1	
S	-.457***	-.267***	-.517***	-.390***	-.221***	.507***	-.396***	-.322***	.871***	.507***	1

P.S: Parenting Stress, P.P:Parental Pain, D.I: Dysfunctional Interaction, P.C: Picky Child, D.M: Discipline Method, R.R: Rational Response, E.R: Emotional Response, O.R: Over-permissive Response, P.E:Parenting Efficacy, C:Competence, S:Stability

\*\*\* $p < .001$

관은 유의했다. 이러한 상관분석 결과를 통해 ‘영유아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훈육방식, 양육효능감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이 검증 되었으며, 양육스트레스가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기본조건이 충족된 것을 알 수 있다.

#### 3.3 매개효과 분석

##### 3.3.1 양육스트레스가 훈육방식(합리적 반응형)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양육스트레스가 훈육방식의 하위요인 중 합리적 반응형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검증 절차를 따랐고 그 결과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와 합리적 반응형의 훈육방식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3.2 양육스트레스가 훈육방식(감정적 반응형)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양육스트레스가 훈육방식의 하위요인 중 감정적 반응형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검증 절차를 따랐고 그 결과는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와 합리 반응형의 훈육방식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in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on the Rational Response Type

Model	B	SE	$\beta$	t(p)	$R^2(\Delta R^2)$	F(p)
Parenting Stress (Parenting Efficacy)	-.777	.043	-.661	-17.965***	.437(.436)	322.732***
Parenting Stress (Rational Response)	-.311	.038	-.377	-8.280***	.142(.140)	68.558***
Parenting Stress (Rational Response) Parenting Efficacy (Rational Response)	-.068	.047	-.083	-1.461	.253(.249)	70.018***
	.312	.040	.444	7.841***		
tolerance= .563/ VIF= 1.778						
Sobel's test Z = -9.00***						

\*\*\* $p < .001$

Table 4.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in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on the Emotional Response Type

Model	B	SE	$\beta$	t(p)	$R^2(\Delta R^2)$	F(p)
Parenting Stress (Parenting Efficacy)	-.777	.043	-.661	-17.965***	.437(.436)	322.732***
Parenting Stress (Emotional Response)	.476	.042	.485	11.288***	.235(.233)	127.419***
Parenting Stress (Emotional Response) Parenting Efficacy (Emotional Response)	.273	.054	.278	5.032***	.290(.286)	84.508***
	-.262	.046	-.313	-5.662***		
tolerance= .563/ VIF= 1.778						
Sobel's test Z = 6.22***						

\*\*\* $p < .001$

Table 5.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in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on the Over-permissive Response Type

Model	B	SE	$\beta$	t(p)	$R^2(\Delta R^2)$	F(p)
Parenting Stress (Parenting Efficacy)	-.777	.043	-.661	-17.965***	.437(.436)	322.732***
Parenting Stress (Over-permissive Response)	.409	.049	.376	8.274***	.142(.140)	68.458***
Parenting Stress (Over-permissive Response) Parenting Efficacy (Over-permissive Response)	.273	.054	.278	5.032***	.180(.176)	45.478***
	-.242	.055	-.262	-4.411***		
tolerance= .563/ VIF= 1.778						
Sobel's test Z = 4.55***						

\*\*\* $p < .001$

3.3.3 양육스트레스가 훈육방식(과대허용적 반응형)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양육스트레스가 훈육방식의 하위요인 중 과대허용적 반응형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검증

절차를 따랐고 그 결과는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와 합리적 반응형의 훈육방식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논의 및 결론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한 결과 본 연구가 갖는 시사점을 전체적인 결론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합리적 반응형 훈육방식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에 대해 훈육방식의 하위요인인 합리적 반응형, 감정적 반응형, 과대허용적 반응형으로 구분하여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고, 연구문제 ‘영유아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밝힌 훈육방식의 하위요인별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양육스트레스가 있더라도 합리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감정적·과대허용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처럼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훈육방식의 사용을 낮추고 긍정적인 훈육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신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부모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가정 내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체벌 금지 및 긍정적인 훈육방식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영유아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부모가 긍정적인 훈육방식을 선택하고 궁극적으로 가정 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긍정양육 슬로건을 내걸고 건강한 양육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사회에서 부모 교육 및 상담의 방향성을 어디에 두고 나아가야 할 것인지 보여주며, 부모의 양육효능감 증진을 위해 꾸준한 상담 및 교육의 지원이 되어야 하고, 모든 부모가 그것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정책적으로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밝힌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역할은 아동학대행위자 상담현장뿐만 아니라 일반 부모교육 및 상담현장에서 부모에게 긍정적인 훈육방식을 선택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다뤄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긍정적인 훈육방식을 이끌기 위한 부모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의 운영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것과 병행하여 양육효능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보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척도는 자기 보고식 설문지이며, 어린이집 교사의 협조를 얻어 아동을 통해 부모에게 설문지가 전달되었기 때문에 설문 대상자들은 방어적으로 또는 인위적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 보고식 평가 외에 면담 및 행동 관찰 등 자료수집의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하여 자기 보고식 설문지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양적 연구에 기초하였으므로 심층 상담과 관찰을 통한 질적 연구로서, 실제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 양육효능감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 후속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는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에 있어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이론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과 가정을 연계하여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훈육방식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 실제로 적용된다면 본 연구의 효과를 실제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1] S. K. Chio, *Relation among Young Children's Affective Perspective Taking, Prosocial Behaviors, and Mother's Discipline Style*,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Wonkwang University, pp.8, 2004.
- [2] E. Y. Cho,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Discipline Style and Young Child's Conscience: The Moderating Role of Young Child's Fearfulnes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pp.11, 2009.
- [3] Hurlock, E. B, *Child development*(6th ed.), p.570, Tokyo: McGraw-Hill Kogakusha, 1978, pp.10.
- [4] Barbara J, "Discipline in Early Childhood", *Ped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Vol.38, No.6, pp.1351-1369, 1991.  
DOI: [https://doi.org/10.1016/S0031-3955\(16\)38224-4](https://doi.org/10.1016/S0031-3955(16)38224-4)
- [5] Rama P, *Language acquisition in early years of childhood: the role of family and pre-primary education: thematic report*, p.13, UNESCO, 2023, pp.13.
- [6] Bandura, A., Walters, R. H., "Adolescent Aggression. A Study of the Influence of Child-Training Practices and Family Interrelationships",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117, No.5, pp.472-473, 1960.  
DOI: <https://doi.org/10.1176/ajp.117.5.472>

- [7] Glueck, SheldonGlueck, Eleanor T., "NOTE ON PLANS FOR FURTHER "UNRAVELING" JUVENILE DELINQUENCY." *Journal of Criminal Law & Criminology*, Vol.41, No.6, pp.759-762, 1951.  
DOI: <https://doi.org/10.2307/3491273>
- [8] McCord, W., McCord, J., & Howard, A., "Familial correlates of aggression in nondelinquent male children"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Vol.62, pp.79, 1961.  
DOI: <https://doi.org/10.1037/h0045211>
- [9] S. N. Choi, Y. K. Moon, "The Effects of Daily Stress and Parental Discipline on the Problem Behavior of Infants = Analysis by Gender" *The Korea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0, No.97, pp.125-156, 2016.
- [10] E. Y. Kim, *The Path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Parenting Efficacy, and Dysfunctional Discipline Practice to Child's Adjustment Problem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pp.3-4, 2005.
- [11] J. Y. Kim, "Child-rearing Attitude and Parenting Stress of Mothers with Infant",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23, No.9, pp.91-100, 2015.  
DOI: <https://doi.org/10.17547/kjsr.2015.23.2.91>
- [12] Simons, R. I., Beaman J., Conger, R. D., & Chao W., "Stress, Support, and antisocial behavior trait as determinants of emotional well-being and parenting practices among single moth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55, pp.385-398, 1993.  
DOI: <https://doi.org/10.2307/352809>
- [13] Synder, J., "Discipline as a mediator of the impact of maternal stress and mood on child conduct problem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3, pp.263-276. 1991.  
DOI: <https://doi.org/10.1017/S0954579400005307>
- [14] M. H. Park, *Exploratory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father's parenting self-efficacy scale*. Ph.D dissertation, Silla University Graduate School, pp.7-9, 2014.
- [15] Y. M. Kim, J. M. kim, "The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infant development: The mediating effects of mother's responsible interaction and parenting efficacy"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37, No.2, pp.169-187, 2017.  
DOI: <http://dx.doi.org/10.18023/kjece.2017.37.2.008>
- [16] H. S. Pakr, M. H. Do, "The Effect of Mother's Resilience on the Self-esteem of Children's through Mediation of parenting Efficacy"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24, No.1, pp.55-67, 2019.
- [17] Cutrona, C. E., & Troutman, B. R., "Social support, infant temperament, and parenting self-efficacy: A mediational model of postpartum depression" *Child Development*, Vol.57, No.6, pp.1507-1518, 1986.  
DOI: <https://doi.org/10.2307/1130428>
- [18] Gross, D., Conrad, Fogg, L., & Wothke, W., "A Longitudinal model of maternal self-efficacy, depression, and difficult temperament during toddler hood" *Research in Nursing & Health*, Vol.17, pp.207-215, 1994.  
DOI: <https://doi.org/10.1002/nur.4770170308>
- [19] Scheel, M. J., & Rieckman, Y., "An empirically derived description of self-efficacy and empowerment for parents of children identified as psychologically disordered"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Vol.26, No.1, pp.15-27. 1998.  
DOI: <https://doi.org/10.1080/01926189808251083>
- [20] H. W. Kim, *The Effect of Maternal Parenting Efficacy and Disciplinary Behavior Pattern on Children's Self-regulation Ability*, Master's thesi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p.19, 2018.
- [21] Abidin, R. R., Parenting Stress Index (PSI) manual (3rd ed.).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1995.  
DOI: <https://doi.org/10.1037/t02445-000>
- [22] K. M. Chung, K. S. Lee, J. Park, H. J. Kim, "Standardization Study for the Korean Version of Parenting Stress Index(K-PSI)",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27, No.3, pp.689-707, 2008.  
DOI: <https://doi.org/10.15842/kicp.2008.27.3.007>
- [23] Abidin, R. R.,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PSI/SF).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1990.  
DOI: <https://doi.org/10.1037/t02445-000>
- [24] Y. H. Choi, H. J. Moon,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Parents' Discipline Style Scale for Young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Vol.14, No.2, pp.29-53, 2020.  
DOI: <http://dx.doi.org/10.5718/kcep.2020.14.2.29>
- [25] J. M. Kim, H. S. Lim, S. H. Hu, "A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and the Parenting Alliance Inventory",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27, No.2, pp.1-21, 2014.

최 정 윤(Jeong-Yun Chio)

[정회원]



- 2023년 8월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상담심리전공)
- 2024년 3월 ~ 현재 :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 박사 재학)

<관심분야>

부모상담, 상담심리, 긍정심리학

김 성 봉(Sung-Bong Kim)

[정회원]



- 1994년 8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04년 2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05년 3월 ~ 현재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도박중독, 긍정심리학, 마음챙김